

# 아시아의 동아리들과 함께



일본전기 통신 노동조합  
(젠덴쓰)

# 젠덴쓰의 활동

## 1. 종합생활개선투쟁의 전진

N T T·그룹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고도정보화사회의 리딩·컴퍼니에 걸맞는 「중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임금」과 주 35시간 노동을 내다보는 노동시간의 단축, 세제·연금등의 제도·정책요구·기업내 복지시책의 충실화 등 포괄적인 종합생활개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2. N T T의 분리·분할에 반대하고 N T T·그룹기업의 발전과 일하는 보람있는 직장 만들기

21세기의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이상의 꿈과 희망을 갖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생산·사회·생활의 각기분야에 밀착된 정보통신기반을 정비하고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적인 역할을 떠맡을 N T T·그룹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N T T의 분리·분할에 반대하고, 인원·고용정책의 확립등 조합원의 고용확보·확대, 일하는 보람있는 직장만들기를 지향합니다.

## 3. 연합·정보노련의 강화·발전을 꾀하고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1989년에 결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내셔널 센터 「연합」은 이제까지의 활동속에서 커다란 사회적 기반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이 흐름을 멈추는 일 없이 더한층 구심력을 높이고 정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정책·제도요구의 전진을 기할것입니다.

정보노련은 젠덴쓰가 가맹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만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확보·확대, 노동조건의 유지·향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사회의 국제화 가운데서 산업별 노조의 대응과 확대가 요구되고 있으니만큼, 정보노련의 산업별 기능을 강화해 갈것입니다.

## 4.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운동의 발전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값진 것이 되기 위하여서는 젠덴쓰가 얼마만큼 사회에 열려있는 조직인가와 아울러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이 싱싱하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느냐가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젠덴쓰에서는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직장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화, 교육선전, 제정, 조직기능등의 각분야에서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약점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 5. 크게 번져가는 젠덴쓰의 활동

이상에서 밝힌외에 젠덴쓰에서는 조합원이나 사회의 니즈에 부응하여, ① 노동학교·유니티 이즈의 운영 ② 「젠덴쓰 신문」(주간)이나 「여명(월간)」의 발행 ③ 젠덴쓰센터 공제생협·노동금고 ④ 법률상담·수혈센터 ⑤ 국제연대·협력활동 ⑥ 국내외의 불런티어 활동 ⑦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⑧ 히로시마·나가사키·오끼나와등의 평화행동에의 참여등 다기에 걸치는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직자의 회」나, 지역조합원을 조직한 「거주지 조직」활동에도 들러붙고 있습니다.



가지모토 고오지

젠덴쓰 위원장  
정보노련 위원장  
연합 부회장  
PTTI 부회장